

구대(九大) 법문학부(法文學部) 정문(正門)의 표정(表情)

—대학(大學) 정문(正門)의 로맨스

먼저 규슈(九州)제대 법문학부 정문의 모양을 그려 보면 이렇다. 네 기둥이 서 있다. 가운데 두 기둥이 크고 가로 선 두 기둥이 작다. 기둥의 구조는 화강암으로 된 축대 위에 벽돌을 깎아 올려 놓았으며 가운데 두 기둥 꼭지에는 전등이 달려 있다. 그리고 두 큰 기둥 사이로 두 짝으로 된 쇠창살 문이 달려 있고, 큰 기둥과 작은 기둥 사이로 또 각각 외쪽으로 된 쇠창살 문이 달려 있다.

이 간단한 묘사로도 상상할 수 있겠거니와 돌과 쇠와 벽돌로 된 이 문은 펑이나 무뚝뚝한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은 내가 3년 동안 그것을 드나드는 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표정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내가 처음 입학시험을 보려고 이 문을 들어갈 때 이 문은 내게 여간 냉담한 바가 아니었다. 제 주인의 아들이 되려고 찾아오는 나를 반기기는커녕 「너는 감히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위협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섣뚱 그 문 안으로 들어서지를 못하고 얼마 동안 망설이다가 「오나. 네 주인이 나를 귀한 아들로 맞아 줄 때 네 꼴이 어찌 되나 구경 좀 하자」 이렇게 마음을 울크려먹고 속으로는 어찌했든 겉으로는 유유

히 걸어 들어갔었다.

그러나 두어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서 또 보기 싫은 것을 만났다. 문 안으로 십여 척 떨어진 곳에 마치 순사 파출소같이 벽돌로 쌓아 올려 지은 박스 속에 순사 같은 양복과 모자를 쓴 수위가 오만하고, 냉정하고, 아니꼬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이때 또 다시 한 번,

「오냐, 내가 이 학교 제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네 활개를 펴고, 이 문을 드나들 때 네 초라한 행색을 구경 좀 하자.」

하고 마음에 옥먹지 않았던들 그대로 비위가 상해 돌아 나왔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 3일을 두고, 나와 이 문과 그 수위 사이에 이러한 암투가 경험되었다. 그러나 시험을 다 마치고 나올 때 나는 수위의 조소하는 듯한 눈초리와 이 문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흥 하고 콧등으로 묵살하여 줄 수가 있을 만큼 나의 수험결과에 자신을 얻었다. 그때부터 2주일이 지나 합격의 통지를 받았을 때 나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제 네 활개를 펴고 그 오만한 교문을 마음대로 들어 다닐 수가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문과 그 수위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루바삐 개학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개학일이 왔다. 그러나 그 학교 제복과 제모를 쓰고 복수에 불타며 그 문 앞에 설 때, 그 문의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 냉담하던 표정은 어머니와 같은 보드라운 웃음으로, 위협하는 듯하던 표정은 아버지와 같은 무거운 위엄으로 변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쌀쌀하던 수위의 눈초리는 늙은 마음의 눈과 같이 선량하게 빛났다.

나는 더 그들과 암투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 나의 그렇게 옥먹었던

마음도 곧 봄눈처럼 스러졌다. 나의 이 눈치를 보고 이 문은 나를 포용하려고 가슴을 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듯이 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와 아버님의 엄하나, 그러나 관대하신 웃음이 꿈처럼 서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로 인지 소리 있었다.

「이곳은 배우고 사람의 길을 닦는 곳이니라. 그러니 너는 진리를 찾고 덕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만 너의 기쁨을 찾아야 할지니라.」

낮으나 그러나 뼈 속까지 울리도록 힘 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이 소리에 알지 못할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서 나는 부속도서관 앞 잔디밭 위에 가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부터 나의 기쁨은 오직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매질하는 데만 있을 것입니다.」

하고 굳게 맹세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를 하게 한 것도, 그리하여 이곳에서 배운 3년 동안의 나의 일생에 가장 즐겁고 의의 있는 시기로 만들어 준 것도 이 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이 밖 속세의 모든 불순한 공기와 환조를 막고 교문의 신성하고 엄숙하고 긴장한 분위기를 빚어 주었으며, 또 아침에 학교를 들어설 때마다 나로 하여금 세속의 모든 잡념을 잊게 하고, 진리욕에 불태워 준 덕택으로 나는 나의 대학 3년 동안을 헛되어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진리를 찾고 사람의 길을 닦으라」라는 학교의 기대에 과히 크게 어긋남이 없이 3년을 마치고 사각모자를 벗고 중절모를 쓰고 「절금(折襟)」을 벗고 「배광(背廣)」을 입고 나올 때, 교문은 마치 갑자기 성장한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같이 놀람과 기쁨에 넘치는 표정을 하여 주었으며, 또 한편 사랑하는 아들을 멀고 험한 길에 떠나 보내는 어머니와

같이 서러워하고 안타까워하여 주었다. 그리고 「부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잊지 말고 또 찾아 주렴」 이렇게 부탁하여 주었다.

세상 바다에 나온 지 3년, 그 동안 몹쓸 풍파를 겪을 때마다 나의 가장 그리워지는 곳은 아무런 근심·걱정 모르고 오직 배움에만 열중할 수 있었던 따스한 모교의 품안이다. 그곳에는 언제든지 평화와 정실(精實)과 기쁨이 있다. 지금도 아마 정문은 나를 반가이 맞아 주겠지. 그리고 그 품에 안겨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다 잊게 해 주겠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바다처럼 노스텔지어가 나를 엄습한다.

(《사해공론》, 1권 5호, 1935. 9. 1)